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AN FRANCISCO

북가주 한국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먼저 우리 동포 자녀들이 모국어와 모국의 역사·문화 학습을 통해 올바른 정체성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한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신을 드리게 된 것은 최근 이 지역에 세종학당을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거듭하여 표명하고 계신 데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말 이 문제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을 때 저희 공관은 관련 상황을 본국정부 관련기관들에게 가감없이 상세히 알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지역 세종학당 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북가주 한국학교들이 세종학당 설립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한국정부를 대표하면서 그간 한국어의 보급전파를 위해 나름대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저로서는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소속 47개 한국학교 교사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성명서 발표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점에서 다소 유감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AN FRANCISCO

우선 작년 말 첫 번째 성명서가 발표되었을 때 저희 총영사관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먼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저희 총영사관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및 문화외교 정책에 대한 그토록 신랄한 비판이 담겨 있는 성명서를 신문을 보고 알게 된다면 그 성명서의 주체가 저희 총영사관의 한국 정부 대표성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평소 이 지역 한국학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한국학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왔다고 자부하던 저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성명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세종학당과 한국학교간 교사와 학생의 중복 가능성을 염려한 부분 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점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시다만, 세종학당과 한국학교는 근본적인 설립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학교는 한인자녀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교사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동포단체이며, 세종학당은 한국정부가 국가 브랜드와 위상 제고라는 고도의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전파하는 문화외교기관입니다. 따라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국학교가 세종학당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으니 부당하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AN FRANCISCO

물론 위와 같은 두 기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중복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한국학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도 두 기관이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잘 지켜 나간다면 중복의 문제를 피하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면 세종학당은 한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인텐시브하게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학교들도 한인자녀들에게 특화된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미주 한인동포 자녀중 10-20%만이 한국학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학교들은 이 동포 자녀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종학당이나 미국학교내 한국어반 설치 등을 통해 미국사회 구석구석에 한국어의 바람이 인다면 이는 한국학교들의 한인 자녀 유치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가 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한국학교에서 오랜 기간 봉사해 오신 선생님들이 학교에 깊은 애착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학교를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자신의 학교를 통해야만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이 함양되고 한국어의 보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시는 데에는 우리 자녀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통해 올바른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AN FRANCISCO

세종학당 문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핵심정책을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세종학당과 한국학교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총영사관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저희 총영사관은 북가주 한국학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2013. 2. 27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이 정 관

